

보도시점 2025. 4. 24.(목) 12:00 / 배포 2025. 4. 24.(목) 08:30  
< 4. 25.(금) 조간 >

##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최초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18일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주)지에스리테일(GS25), ▲(주)비지에프리테일(CU), ▲(주)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주)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가맹점 수 기준)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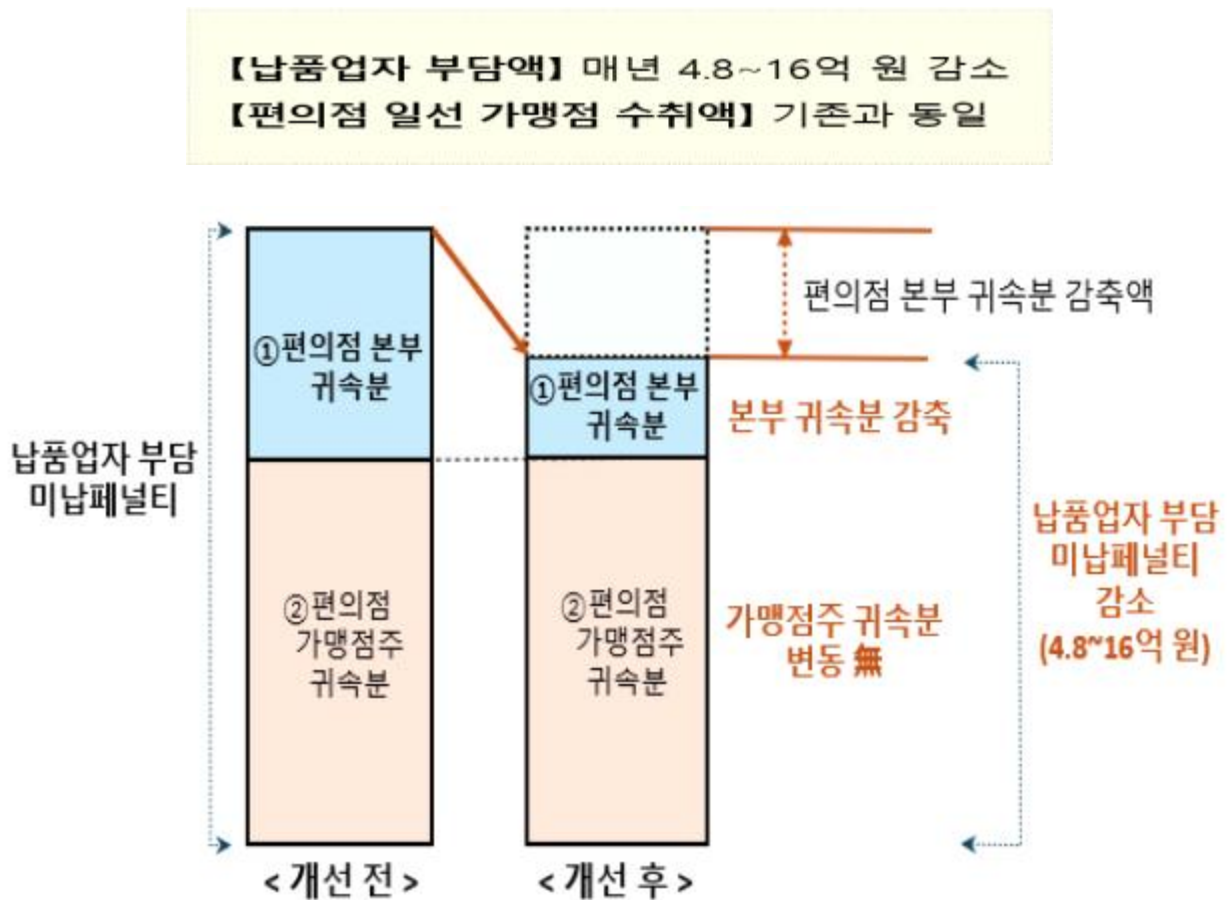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체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의의결에 따른 미납페널티율 인하로 인하여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도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8억 원 ~ 16억 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참고로 미납 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편의점 4사 미납페널티율 인하 전·후 주체별 손익 증감 >



둘째,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광고 30억 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중소기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편의점 4사 상생협력방안(요약)>

편의점	대상 납품업체수	상생협력방안(억 원)				
		계	기금	광고	정보제공*	후생지원
GS25	372개	27	10	7	10	-
CU	367개	26.49	10	11.28	5	0.21
세븐일레븐	270개	15	5	5	5	-
이마트24	237개	14.26	5	6.54	2.72	-
계	1,246개	82.75	30	29.82	22.72	0.21

\* 편의점 4개사가 점포의 상품 취급율 및 카테고리별 매출 점유율, 지역별/요일별/시간대 별 점포의 매출 정보, 매출 트렌드 등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최종 동의를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붙임 1>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건 개요

<붙임 2> 동의의결 제도 참고자료

<붙임 3>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

<붙임 4> 편의점 4사 일반 현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유통대리점조사과	책임자	과 장	조원식 (044-200-4603)
		담당자	조사관	안응철 (044-200-4610)
			조사관	안정희 (044-200-4610)
			조사관	이승헌 (044-200-4610)



1

동의의결 개요

- (신청 경위) 편의점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는 2024년 5~6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2024년 9월 4일 동의의결절차의 개시를 인용 결정하였다.
  -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게 과도한 상품미납 손해배상금(일명 ‘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편의점 4사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 (의견 수렴) 공정위는 편의점 4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개월 간 관계 부처 및 납품업자,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최종 의결)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의 거래질서 회복 효과 및 피해사업자 보호 효과 등 적절성을 심의하여 2025년 4월 18일 최종 의결하였다.

<편의점 4사 동의의결 경과 요약>

○ 2023년 6월 ~ 7월	공정위, 편의점 4사 조사 착수
○ 2024년 5월 ~ 6월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 2024년 9월 4일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2024년 11월 8일	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2024년 11월 12일 ~ 12월 12일	공정위, 이해 관계인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
○ 2025년 4월 18일	공정위, 최종 동의의결 인용결정

## 2

## 동의의결 주요 내용

- ◇ 이번 동의의결에는 납품업자의 ▲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 개선(미납 페널티율 인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개선 등), ▲ 피해구제 및 상생 협력(상생협력기금 3년 간 30억 원 출연,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 상당 무상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상세한 동의의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소식·뉴스 → 공지·공고)에 공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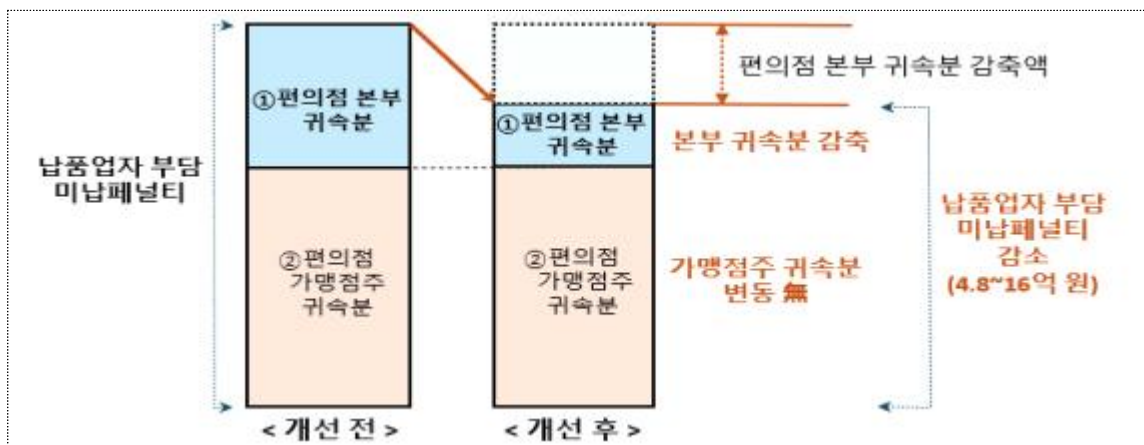
### 가. 미납페널티 인하 및 거래조건 개선

- 편의점 4사는 대형마트 등 유사업체의 거래관행을 고려한 미납페널티율 인하를 통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 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 표준계약서에 미납페널티율(손해배상률) 명확화

- 편의점 본부가 수취하는 미납페널티를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미납액의 6%~10%)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8억 원 ~ 16억 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참고로 미납페널티 중 가맹점 귀속분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하여 편의점 일선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 편의점 4사 미납페널티율 인하 전·후 주체별 손익 증감 >





## 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및 수취 절차 개선

-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관련 증빙절차를 강화하였다.
- 편의점 4사는 신상품의 기준을 기존 자신의 편의점에 출시한 시점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며,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기존 기준에 따르면 국내시장 출시일과 무관하게 편의점에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은 입점장려금 수취 대상이나, 동의 의결에 따른 개선 기준에 따르면 편의점 출시일이 국내시장 출시일보다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 \* 다만 신상품이 출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납품업체가 자율적으로 홍보의 필요성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신상품으로 입점 및 장려금 지급 가능

### <편의점 4사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방법(기존)>

납품업자	상품명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시기	편의점 출시일 (A)	국내시장 출시일 (B)	국내시장 출시 후 경과 기간 (A-B)
A사	□□캔디	2021. 10.	2021. 9. 12.	2019. 5. 8.	2년 4월
B사	○○스파클링	2022. 4	2022. 3.	2020. 3. 23.	1년 11월



### <편의점 4사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방법(개선)>

납품업자	상품명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가능여부 (수취 가능시점)	편의점 출시일 (A)	국내시장 출시일 (B)	국내시장 출시 후 경과 기간 (A-B)
A사	□□캔디	원칙적 수취 불가	2025. 3. 1.	2024. 5. 1.	10개월
B사	○○스파클링	수취 가능 (2025. 3.)	2025. 3. 1.	2025. 1. 1.	2개월

※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III. 1. 3. 2.) ‘신상품인지의 여부’는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기존 상품과 상품코드가 바뀐 것에 불과한 리뉴얼 상품은 이 지침에서의 신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 방안 시행

□ 아울러, 편의점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합 30억 원)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약 53억 원 상당)한다.

※ 지원대상: 최근 4년간('20~'23년) 미납페널티·신상품 입점장려금을 1백만 원 이상 납부하였으며 현재 거래 중인 납품업자 중 납부액이 많은 업체 순으로 3가지 지원사업 중 1가지 선택 지원

- ① (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기부 위탁기관)에 민간자율 공동사업 기금 출연,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 지원
- ② (광고 지원) 편의점 본부가 유료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광고 무상 지원
- ③ (정보제공서비스 지원) 편의점 본부의 유료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
  - \* 편의점 4개사가 점포의 상품 취급율 및 카테고리별 매출 점유율, 지역별/요일별/시간대 별 점포의 매출 정보, 매출 트렌드 등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④ (후생지원) 납품업체 커피차 지원(CU만 해당)

<편의점 4사 상생협력방안(요약)>

편의점	대상 납품업체수*	상생협력방안(억 원)				
		계	기금	광고	정보제공	후생지원
GS25	372개	27	10	7	10	-
CU	367개	26.49	10	11.28	5	0.21
세븐일레븐	270개	15	5	5	5	-
이마트24	237개	14.26	5	6.54	2.72	-
계	1,246개	82.75	30	29.82	22.72	0.21

- 편의점 4사는 최종 동의를결한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년~3년 이내에 상생협력기금 사업 운영, 광고 지원 및 정보제공 지원 등을 완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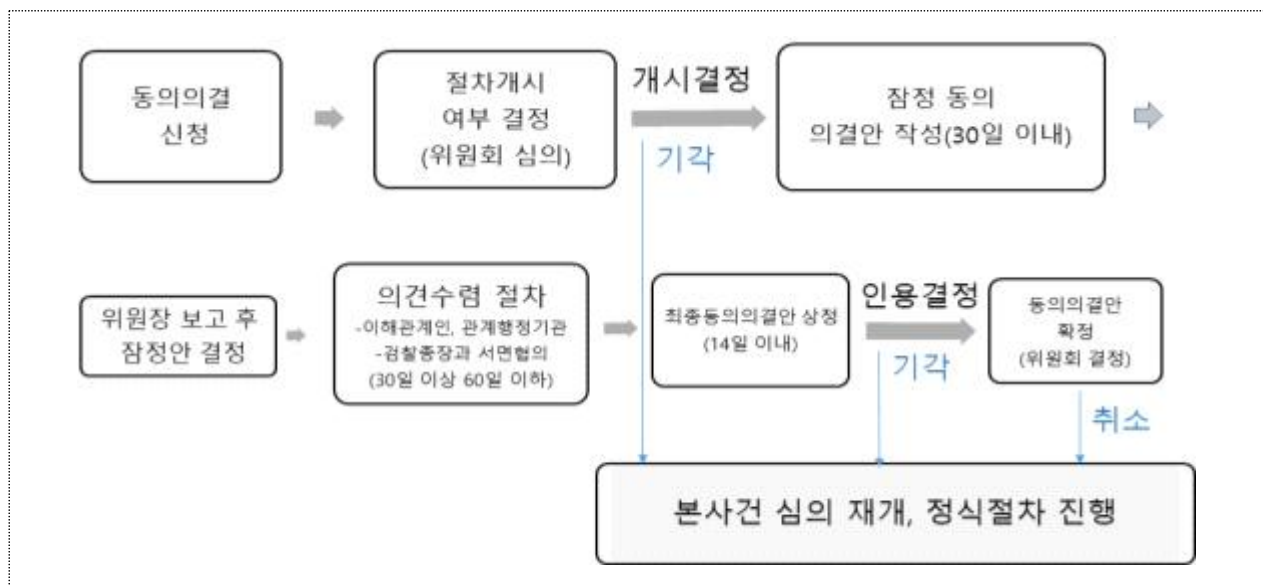
- (의의) 이번 동의의결 최종 확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 동의의결이란?

-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법위반 여부 판단은 여부)

## □ 동의의결 절차

-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 동의의결안 심의·확정



## □ 동의의결의 요건

- (개시 요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등 공익 부합성을 고려하여 판단
- (인용 요건) ① 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②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납품업자등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 법에 의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납품업자등의”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으로 본다.

## 붙임 4

## 편의점 4사 일반 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편의점	설립일	연도	가맹점 수*	자산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주)지에스리테일 (GS25)	1971-02-13	2021	15,499	7,678,930	4,111,273	9,118,512	304,968
		2022	16,448	7,951,326	4,109,790	10,409,711	367,053
		2023	17,390	8,218,723	4,082,532	10,886,894	314,982
(주)비지에프리테일 (CU)	2017-11-01 (1994.12.1. 훼미리마트→ 2012.6.7. CU로변경)	2021	15,855	2,555,959	782,139	6,762,088	197,158
		2022	16,787	2,857,090	931,256	7,577,772	249,222
		2023	17,762	3,125,008	1,033,380	8,131,702	241,386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1992-11-05	2021	13,625	2,041,898	210,543	5,357,544	-10,965
		2022	14,202	2,683,619	553,078	5,552,131	-7,698
		2023	13,130	2,655,434	553,078	5,709,818	-52,458
(주)이마트24	2006-03-15	2021	5,852	524,341	46,772	1,917,882	-3,455
		2022	6,364	634,732	57,865	2,118,050	6,767
		2023	6,594	773,836	121,290	2,225,135	-23,021

\* 가맹점수: 가맹점 수 + 직영점 수

\*\* (주)코리아세븐은 '22.3월 한국미니스톱을 흡수합병함

※ 자료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